

<http://dx.doi.org/10.7236/JIIBC.2014.14.1.211>

JIIBC 2014-1-28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스포츠 활동 시간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th Impacted by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and Sports Activities

권미란*

Mee-Rhan Kwon*

요 약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스포츠 활동 시간 등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 지능에 부(-)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 시간도 감성 지능에 정(+)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독서량도 감성 지능에 정(+)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활동, 즉 스포츠 활동이나 독서는 청소년의 감성 지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청소년의 감성 지능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e smart revolution led by Smart Phone in our daily lives is changing the paradigm in general. These smart revolution has provided us a lot of convenience, but on the other hand also appearing an inverse function. The host of the future of young people, especially by the excessive use of smart devices, there is a risk of side effects increase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to know how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and youth sports activities affect to the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and the time of youth sports activities affected positively with the emotional intelligence. Additional analysis of the amount of reading also affected positively to the motional intelligence as a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s a conclusion, traditional activities, namely sports activities and reading to help the youth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while the use of smart devices inhibit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th.

Key Words : smart devices, emotional intelligence, sports activities, The number of books students read

1. 서 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개인 단말

기로서의 스마트 기기들이 현 세대에 없어서는 안 될 지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컴퓨터에서 이루어
지던 모든 것이 스마트 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희원,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접수일자 2014년 1월 15일, 수정완료 2014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7일

Received: 15 January, 2014 / Revised: 3 February, 2014 /

Accepted: 7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mrkwon@komu.ac.kr

Dept of Child studies, Nazarene University, Korea

과연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시대인 것이다. 이 IT 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IDC는 2013년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총 9억 1,86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출하량은 전세계 휴대폰 출하량의 절반을 넘는 50.1%를 차지하는 규모로 피쳐폰 출하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7년 말까지는 총 15억만대의 스마트폰이 출하될 것이며, 이는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1]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1년 12월 2,258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2년 12월 3,273만 명, 2013년 7월에는 3,595만 명을 넘어섰다.^[2] 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혁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명은 일상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3]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에게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미란(2013)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6.5%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 수준을 넘어 중독 상태에 이른 청소년과 성인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체육의 과학적 연구는 18~19세기 초부터 체조(Gymnastics)의 개념으로 근대체육의 기초를 쌓은 몇몇 체조가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체육에 대한 용어가 최초로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18세기 후반 델사르트(Delsarte)의 "Education Physique"에서 비롯된다. 이후 이 용어는 1840년대 신체와 교육의 합성어인 "Physical Education"으로 일반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스포츠 연구(sport studies)" 또는 "스포츠 과학(sport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육 즉, 스포츠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5] 현대사회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의 체육활동은 성장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인격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6]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대에 들어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김옥현·박진경(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체력 저하의 원인으로 TV시청, 컴퓨터 게임과 같은 비신체적 활동의 증가와 학교 운동장 폐쇄 및 감소,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체육시간 감소 등 열악한 운동실천 환경으로 예전에 비해 청소년의 체력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체력수준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성취의 욕구실현을 도모하며, 그로인해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함양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8]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에 달려 있으며,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여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감성지능과 체육활동 간의 연구는 매우 적은 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졌으며 스마트 기기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에 비해 스마트 기기가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독서량에 따라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감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감성은 지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성보다는 하등한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었다.

감성지능 또는 감성지수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미국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Mayer와 Salovey(1990)는 감성이 지식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모든 지적인 문제해결은 감성적 정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성지능을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변별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술하였다.^[9] Goleman(1995)

은 감성적 반응은 편도와 대뇌피신질과의 계획적인 상호 재조정작용이라는 이론으로 과학적인 증명을 하였으며, 각 요소별로 임상의학계, 심리학계의 경험적 연구를 제시하여 감성지능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감성의 의미를 하나의 감정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뚜렷한 사고 및 심리적 생리적 상태와 일련의 행동 경향으로 규정하였으며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10] Mayer와 Salovey(1997)는 감성지능을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지각·표현하는 능력, 감성을 생성하고 이해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 감성과 감성에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감성발달과 지적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감성과 지능이라는 요소가 결합한 개념으로 수정해서 주장하였다.^[11] Goleman(1999)은 IQ가 출세와 성공의 20%를 설명하는 반면 감성지능은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12] Bar-On(2000)은 감성지능을 감성과 사회적 지식의 배열, 환경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13] Wong과 Law(2002)는 감성지능을 자신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감성지능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조절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14] 함규정과 윤위석(2008)은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팀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갈등이 줄어들고 팀 내 구성원 간 높은 애착심과 집단에 남아있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했다.^[15] 박창수(2002)는 한 사람의 성공을 예측할 때 지적능력 보다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감성능력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여 현대인들의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16] Cole, Martin 그리고 Dennis(2004)는 감성지능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안내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상황에 맞는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이입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자신과 타인 간에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7] 감성지능과 감성지수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감성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성과 지능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감성은 정신 기능의 정의적 측면에서 구체적 지식을 긍정적으로 발현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혜 또는 삶 전체의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지

능은 정신 기능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 기억, 추론, 판단, 적응을 포함하는 인지적 영역의 효율적인 조작으로 구체적 지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8]

체력은 신체적 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일생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가장 현저하게 발달하며, 이 시기의 체력 수준은 성인기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19]

스포츠 활동(태권도)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호신을 위한 기술 습득, 바른 생활 태도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엄격하고 절제된 훈련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정서의 발달과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건강,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러준다.^[20]

신체활동은 단순히 신체의 발육이나 발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사회성의 발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6]

장하나, 신혜숙(2012)은 스포츠 활동인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21]

III. 연구 모형

본 연구 앞 절에서 제시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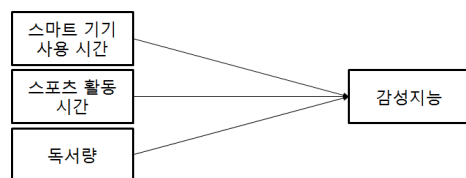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가설내용
가설 1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시간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독서량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 증 분 석

충남 천안 소재 중학교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257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0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Table 2. Properties of Sample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04	47.3
	여자	106	52.7
학년	1학년	85	38.6
	2학년	57	25.9
	3학년	78	35.5
사용 스마트 기기	없음	17	7.7
	안드로이드 폰	189	85.9
	안드로이드 태블릿PC	2	0.9
	아이팟	1	0.5
	아이폰	9	4.1
	아이패드	2	0.9
하루 평균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0	9.1
	1시간 미만	21	9.5
	1시간 - 2시간 미만	49	22.3
	2시간 - 3시간 미만	48	21.8
	3시간 - 4시간 미만	24	10.9
	4시간 이상	58	26.4
일주일 평균 스포츠 활동 시간	1시간 미만	87	39.5
	1시간 - 2시간 미만	70	31.5
	2시간 - 3시간 미만	25	11.4
	3시간 - 4시간 미만	21	9.5
	4시간 - 5시간 미만	2	0.9
	5시간 이상	15	6.8
한 달에 읽는 독서량	거의 없다	86	39.1
	1권 - 3권 미만	68	30.9
	3권 - 5권 미만	25	11.4
	5권 - 7권 미만	17	7.7
	7권 - 9권 미만	6	2.7
	9권 이상	18	8.2

측정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수인 명목 척도이므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

인 감성지능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별 적재량이 0.5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으며, 적재량이 0.5이하의 변수 하나를 제거하고 다시 측정하였으며 그 중에 다른 요인에 대한 적재량의 차이가 뚜렷하여 제거된 요인은 없었다. 또한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측정하였다. 신뢰성 검증 결과 0.9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Beta 값이 -0.070로 나타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감성지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대한 17.2%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3. Regression of Smart Devi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 ² :
감성지능	-0.070	-2.580	0.011	R ² : 0.172 Adj.R ² : 0.025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스포츠 활동 시간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23.5%로 상당히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of Sport Activ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 ² :
감성지능	0.108	3.574	0.000	R ² : 0.235 Adj.R ² : 0.051

오승환(201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감성지수가 체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려 본 연구와 동일 결과를 얻었다.^[22]

장하나, 신혜숙(2012)의 연구에서 무용은 신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그 속에서 형성된 감성지능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개념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 동기화가 주어짐으로서 자기 능력을 인정하는 자신감과 더불어 또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결론을 얻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21]

반면 권미란(2013)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론을 얻었다.^[4] 이화진(2011)의 연구에서는 체력급수에 따른 감성지능의 5개 하위 영역 중 단 1개의 하위 영역인 감정인식만 체력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4개 하위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얻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18]

청소년의 독서량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 분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청소년의 독서량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20.9%로 상당히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독서량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5. Regression of Reading Books and Emotional Intelligence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 ² :
감성지능	0.091	3.160	0.002	R ² : 0.209 Adj.R ² : 0.039

V.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운동 시간과 독서량에 대해서도 각각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충남 천안 소재 중학교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257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

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0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른 감성지능은 부(-)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감성지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이 17.2%로 나타났으며, Beta 값이 -0.070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스포츠 활동과 감성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유의한 것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에 대하여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 및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독서량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전통적인 활동들 즉, 스포츠 활동과 독서는 청소년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감성지능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이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충남 천안 소재 두 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References

- [1] Hye-won Lee, "IDC, World Smart Phone Market Forecast", Internet & Security Weekly, KISA, 2013.
- [2] KISA, "A Study on the Usage by Smart Phone user's gender and age",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 [3] Kang-Tak Oh, Je-Eun Lee, "The Smart Life Revolution and Smart Phone Addiction",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Vol. 3, No. 4, 2012.
- [4] Mee-Rhan Kwon, "The Impa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sing Smart Devices", The Institute of internet,

-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3, No. 1, Feb. 2013.
- [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ort White Paper", 2011.
- [6] Tae Joon Han, Hyung Soo Kim, "The Effects of Taekwondo Training Starting Period and Age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Vol. 15, No. 1, 2010.
- [7] Ok Hyun Kim, Jin Kyung Park,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Exercise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on Physical Fitness,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Intake Status for Adolescents", Vol. 21, No. 3, 2012.
- [8] Jin Keun Jeoung, "The Comparative analyses about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by types of spor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00.
- [9] Mayer, J. D. Dipalol, M. & Salovey. P. "Perceiving the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1990.
- [10]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 [11] Mayer, J. D. &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1997.
- [12] Goleman, D.,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1999.
- [13] Bar-On, R.,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Bar-On, R., & Parker, J. D. A(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14] Wong, Chi-Sum, & Law, S. L.,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d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002.
- [15] K. J. Ham, W. S. Yun, "The Effect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eam's Affective Conflict, Cohesiveness, Creativity",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15, no. 4, pp. 265-284, Dec. 2008.
- [16] Chang-su Park,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Movement Ability and the Intelligence of Sense in Infant",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02.
- [17] Chan Sook Lee, Eun Ja Hyun,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orality,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Vol. 29, No.3, 2008.
- [18] Hwa-jin Lee,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Fitness and Self-esteem, Emotional Quotient, and Student Achievement of Male and Femal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1.
- [19] Sun Gil Hwang, "Study on the Role of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hool Sports", Suw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1991.
- [20] Kwang-hyun Ji, "A Study on the Effect of Taekwondo Training on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01.
- [21] Ha-Na Jang, Hae-Sook Shi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eer Competenc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articipation of Dance Class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50. 2012.
- [22] Seung Hwan Oh, "The Effects of Physical Fitness, Self-efficacy and Emotional Quotient in Relation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1.

※ 본 논문은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저자 소개

권 미 란(정회원)



- 1980년 : 수도여자사범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82년 :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석사)
 - 1996년 : 미국 Southern Nazarene University 대학원 졸업. 유아교육학 전공(문학 석사)
 - 1997년 : Kansas State University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수학
 - 1991년 :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 2009년 : 한세대학교 IT학부 (공학박사)
 - 1990년 ~현재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주 관심 분야 : 아동발달, 유아음악,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